

“청각장애인 여전히 소외”…우리의 외침 안들립니까

오늘 '한국수어의 날' 농인 만나보니

공공기관·병원 등 통역사 턱없이 부족…응급·일상 지원 미흡
광주 통역사 15명뿐…1명당 하루 4건 처리에 3일 대기 기본
“소통·안전에서 배제되는 상황”…농인 복지 체계 개선 필요

#.9살 때 열병으로 후천적 농인이 된 김명옥(여·54)씨는 구청이나 병원에 갈 때마다 수어(手語) 통역사를 따로 불러야 하지만, 매번 예약이 꽉 차며 칠씩 기다려서 일을 봄야 한다. 광주 내 통역인이 턱없이 부족해 사흘은 기다려야 통역인이 겨우 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주 만나는 통역사가 있으면 그런 부담이 줄겠지만, 통역사 한 명 예약하기도 어려워 애에 요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지역 농인(聾人·듣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통역 인프라 부족, 소통 체계 공백으로 인해 소통과 안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수어의 날’(2월 3일)을 앞두고 광주 지역 농인들을 만나 보니, 이들은 “밥은 바뀌었지만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도 일상생활부터 병원 예약, 행정 사무 등 현실의 장벽은 높기만 하고 농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인들은 가장 큰 불편으로는 ‘통역 인력 부족’을 꼽았다. 공공기관이나 병원을 이용하려면 통역사를 사전 예약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통역을 받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 수어통역사는 정원이 20명이지만, 현원은 15명(비장애인 수어통역사 13명, 농통역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년에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는 7000~7500건으로, 통역사 1명당 연간 500건 수준이다. 병원·공공기관 등 행정·통역이 대부분이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2~4건에 그친다. 이 때문에 통역을 요청해도 최소 3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농인여자 광주시서구농아인쉼터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는 고운영(60)씨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교육에서도 실제 발언과 통역 내용이 다른 경

우가 적지 않다”며 “딸이 갑자기 아파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통역사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까 별만 둘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음성 위주의 정보 전달 체계도 농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음성으로만 번호를 호출해 순서를 놓치는 일이 잦고, 버스 우회 운행이나 사고 발생 시 안내도 음성으로만 이뤄져 이동·안전 정보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농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각·발달장애인은 법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청각장애인은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2급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농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은 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농인 통역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수의 통역인, 사회복지사가 광주 지역 전체 농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농인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애 광주시 수어통역지원센터장은 “광주 지역 농인 수를 고려하면, 최소 25명 이상의 통역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광주시는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T/O를 늘려주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농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복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농인은 1만977명(청각장애 1만363명, 언어장애 614명)이다.

/광주여자 기자 heestory@kwangju.co.kr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일 광주시 서구 양동의 광주시서구농아인쉼터에서 만난 문현석(왼쪽부터)·김명옥·고운영씨가 중지와 약자를 접어 'I Love You(사랑해요)'를 뜻하는 수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6456만명 다녀갔다…‘머무는 전남’ 전환 뚜렷

전년비 관광객 65만명 증가

체험형·체류형 관광 늘어나

여수·영광 늘고 광양·강진 줄어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456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체류시간이 늘어나는 등 머무는 관광지로의 질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22개 자치단체의 관광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방문객은 6456만명으로 전년보다 65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지역별 유료 입장객 수와 무인계측기 를 더해 지역을 찾은 관광객 현황을 집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를 인용, 세부적 관광 형태

를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영광을 찾은 여행객이 167만명으로 전년보다 49%(55만명) 늘어 관광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불갑사·상사화·축제 등에 대한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게 영광군과 전남도 분석이다.

고흥도 206만명의 여행객이 찾아 전년에 견줘 36% 늘었다.

전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단연 여수였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1164만명으로 집계돼 2위인 순천(862만명)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목포(836만명)와 담양(418만명)이 뒤를 이었다. 광양(245만명)은 전년도보다 30% 가량 여행객이 줄었고 강진(169만명)도 전년에 견줘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 형태의 경우 관광 위주 단기 방문에서 체험형·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했다.

전남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24시간 7분으로 전국 평균(17시간 1분)보다 7시간 이상 길었다.

대중교통·접근성 한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KTX와 주요 관광지 간 연계 부족, 섬·해안 지역 이동 불편 등으로 개별 여행객 유입에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5월과 10월에 집중되는 계절 편중 구조, 콘텐츠 복제와 시설 위주 개발에 따른 관광 브랜드 경쟁력 약화 등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전남도는 장·단점을 분석, 광주·전남 통합형 체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전남 섬·해방의 해’ 등을 운영해 2026년 이후 전남을 찾는 여행객들의 연평균 10% 성장을 이루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 오미경 관광과장은 “접근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다양화하면서 차별화를 꾀해 전남만의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구 신축 농성청사 개청

광주시 서구청의 노후화,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축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농성청사)가 문을 연다.

광주시 서구는 3일 농성동 634-3, 634-17 일대에서 농성청사 개청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농성청사는 2020년 11월 2일 착공해 지난 1월 13일 준공됐으며,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3952.24㎡) 규모로 건립됐다. 총 사업비는 196억 원이 투입됐다.

서구는 현 서구청사(본청사)가 2011년 완공됐을 당시 당시 근무 인원이 675명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10여 년 만에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이어진 데 따라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동시에 지어진 지 30년 넘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청사로 이전해 노후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농성청사에는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를 비롯해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농성문화의집 등이 이전해 올 예정이다. 또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도 조성할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사립학교법 어기고 퇴직수당 준 총장 징계는 무효

광주지법 “학교 정관에 따른 것”

서영대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따르지 않은 정관으로 명예퇴직 교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은 관련, 법원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김정수 서영대 총장이 대학운영법인 서강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024년 10월 서강학원 교원정기위원회를 통해 경정계(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강학원은 지난 2022년 5월 김 총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A부교수(18년 근속)에게 퇴직 수당 1억22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 처분을 했다.

앞서 서강학원은 지난 2020년 6월 정관을 개정해 명예퇴직 신청 교수의 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근속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후 지난 2024년에 해당 정관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수당 지급 기준을 어겼다고 통보했다.

이에 서강학원은 징계위를 열고 김 총장에게 중징계(해임)를 요구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난 점, 정관 변경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거친 점 등에서 ‘불문’의결됐다. 이후 교육부가 이를따라 시정 요구를 해 오자, 두 차례 징계의결 재심의를 거친 끝에 김 총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A교수에 대한 명예퇴직자 선정과 수당 지급 행위는 어디까지나 개정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 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면지로 36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교정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서비스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학부 편입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